

200자 안내

등산수첩

허창성 엮음

산행 때 휴대하기 쉽게 포켓판으로 제작한 등산지침서. 남한의 명산 30개를 지도와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구급법·독도법·텐트 설치법 등 등산 일반의 기술적인 문제들도 친절하게 해설했다. 전국시의버스정류장의 소재와 전화번호를 수록하는 등 정확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자잘하지만 쓸모있는 정보들을 모았다.

평화출판사/B6/190면/2500원

예술의 이해

오규원, 임우기 엮음

예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을 모아 엮었다. 「미적 차원」(H. 마르쿠제), 「인간과 상징」(E. 카시러), 「예술의 비인간화」(O.Y. 가세트) 등 예술론에 관한 논문 17편이 수록돼 있다.

서울에대출판부/A5신/388면/6000원

상황-O

李相文 외 지음

「월간문학」 신인상을 통해 문단에 등단한 작가 6명의 작품집. 80년대 후반의 노사문제를 다룬 「상황-O」(이상문), 풍수지리의식이 한국인의 집단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비증을 그린 「父·子·傳·承」(김선주), 「平葬魂」(우한용)을 비롯, 「얼음을 깨는 사람들」(곽의진), 「가락도들이」(최한진), 「아버지의 날개」(김자경) 등을 수록했다.

예가출판사/A5신/312면/3500원

당추동 사람들

염재만, 이경자, 안장환, 강유일 지음

당추동은 여자들 세력이 월등히 센 고추마을이며 도시에서 밀려난 산동네. 네명의 인기 중견작가가 한 제목 아래 같은 이야기의 흐름을 받아서 당추동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작형식으로 엮었다. 각 작가들의 독자적인 이야기 전개와 특성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이 조화롭게 이어진다.

日善企劃/A5신/432면/4200원

北京의 어느 거리에서

김광영 지음

우리의 고전시가를 현대적인 삶의 단편에 접목시킨 수필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 저자가 중국북경을 여행했던 경험을 담은 두번째 수필집이다. 만리장성·자금성·천안문 등 북경의 거리에 대한 느낌과, 일상에 깃든 인간내면과 정신세계, 건조한 현대사회 속에서도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4부로 나뉘어 엮여졌다.

상우문화사/A5신/218면/3000원

사랑입니다

다니엘 스틸 지음 / 김재천 옮김

미국의 여류시인 다니엘 스틸의 장편시집. 한 여성이 남성을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성숙시키면서 겪게 되는 기쁨과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여성이 사랑을 시작한 이후의 심적 변화와 갈등이 하나의 줄거리로 이어져간다. 자아함몰적인 사랑은 진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東亞/A5변형/208면/2500원

겨울장마

이향봉 지음

「사랑하며 용서하며」「바람되어 구름되어」「어린이 법규경」 등의 책으로 대중들에게 친근한 향봉스님의 새로운 장편소설. 그는 “그대는 누구인가? 본래 無所有, 無一物인데 무엇이 그대의 것이며, 무엇을 구하려고 혈떡이는가?”라며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질박하고 명쾌한 문장을 따라가다 문득 삶의 의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불교문학/A5신/352면/3500원

여성시대

이종환, 박우성 엮음

MBC AM의 프로그램 「여성시대 이종환입니다」에서 방송됐던 편지사연을 모아 묶은 책. 「내 영혼 위에 뜨는 별」 등 4부로 구성, 각 부마다 40편씩 총 160편의 글을 수록했으며, 작가 박완서·노순자·김홍신·강은교의 에세이도 담았다.

전예원/A5신/290면/3500원

환상의 콤피

박재동 지음

시사만평가 박재동씨가 그동안 일간지(한겨레신문)에 연재했던 그림판들을 모아 짤막

한 해설과 함께 책으로 엮었다. 코믹한 터치와 통렬한 비판으로 그날그날의 핵심을 날카롭게 포착한 만평들을 모두 6장에 나눠 실었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 하면서 이땅의 현실을 해부한 그림판 하나마다 시대의 격렬했던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책 끝에는 유희준씨의 「만평가가 되기까지의 박재동」을 실었다.

친구/A5신/228면/3000원

믿음의 육아일기

나연숙 지음

방송극 인기작가인 저자가, 진실한 신앙의 결과 잉태한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육아일기를 책으로 펴냈다. 뒤늦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실한 신앙인의 증언으로 기록되고 있다.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체험이 생명의 존귀함을 더욱 빛내준다고 고백하고 있다.

弘盛社/A5신/230면/3000원

기독교교육

마빈 L. 롤로프 엮음 / 장종철 옮김

기독교교육의 저명한 교수 12명이 집필한 북미의 기독교교육 지침서. 다원적인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성서적 기초와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다. 선교와 교육이 공존하고 있음을 전제, 오늘의 기독교적인 삶을 위한 교육의 과제들을 주제별로 요약했다.

컨콜디아사/A5신/276면/4500원

人間과 倫理

崔助雄 엮음

윤리학의 기본단서가 되는 역사적 발달과 전통이 담긴 동양사상의 윤리의식을 기술한 책. 윤리학의 성립과 개념을 정의하고 인간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윤리적 상황을 점검했다. 전통윤리에 담긴 도덕을 새로이 조명하고 범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철학과 사회윤리에 대한 이해를 기술했다. 종교와 관련된 실천윤리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所望社/A5신/376면/4800원

분단국의 경제교류

張和洙 지음

통일을 향한 남·북의 대화는 수없이 이뤄져왔다. 저자(중앙대교수)는 경제교류를 통한 원만한 방법론에 의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제, 「경제교류형 분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정치형 분단」과 「체제수렴형 분단」을 혼합작용으로 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분단국 경제교류로서 「지역간 무역」 즉 남북교역론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惠和出版社/A5신/366면/5000원

민간요법

편집자 엮음

순수한 자연식품과 전통 민간요법을 이용한 건강유지법. 감기에 걸렸을 때, 소화기이상, 순환기이상, 피부이상, 신경장애·당뇨병·어깨결림·요통증상 등 모두 11장에 걸쳐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을지출판사/A5신/306면/3500원

인생 1급면허학관

고토오 세이치 지음 / 변태관 편역

15세때 견습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오른 저자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얻은 교훈 365가지를 소개한 책.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매사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등 평범하지만 실행하기 힘든 좌우명들로서, 하루 한가지씩 이를 반추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반성해보도록 이끌고 있다.

新書出版社/A5신/230면/3000원

정보제국주의

강준만 지음

국가간의 정보유통이 미국과 서방의 몇 국가들에 의해 독과점되고 있는 현 세계정보질서의 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한 연구논문. 저자의 매스커뮤니케이션론 박사학위 논문(미국 위스콘신대학)을 압축했다. 정보제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세계정보질서를 논의하고, 그러한 메카니즘을 이루는 정치적 역학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울아카데미/A5신/222면/3500원

홀로 있는 시간에

金泰吉 지음

철학자이며 수필가인 저자가 20여년 전에 썼던 글들을 다시 모아 펴낸 수필집. 저자는 머리말에서 「더러는 객기도 부리고 더러는 잔재주도 부린」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잔잔하게 풀어나간 글들이 세월의 변화와 무관하게 잔잔한 빛을 발하고 있다.

三育出版社/A5신/342면/3500원

經營學原論

金圭泰 지음

경영의사결정론과 전략, 조직행동론의 중요성을 비중있게 다룬 경영학 이론서. 실증적

인 사례와 해결방안을 예시, 새로운 경영여건에 대처할 경영관리기술을 체계화하고 있다. 기업형태 · 환경,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전략 및 계획, 경영조직을 기술하면서 마케팅 · 재무 · 생산관리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進明文化社/A5/454면/7000원

現代貿易商務論

金鍾淳, 張英俊 지음

무역거래의 원리와 기초지식을 이론과 실무에 바탕을 두어 쉽게 기술했다. 무역거래에 필수적인 무역영어에 대한 이해, Incoterms를 중심으로 한 무역조건의 해석, 무역통신의 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텔레스 · 전보 · 팩시밀리에 대한 상술을 담았다.

經世院/A5신/814면/9000원

학술지

東方學志(제57집)

[논문]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성립과 그 사상(김두진) ▲세종朝의 漏刻에 관한 연구(남문현) ▲「農事直說」과 「四時纂要」의 木綿耕種法 증보(김용섭) ▲17세기 閩房小說의 성립과 「倡善感義錄」(임형택) ▲韓國裝潢史料(조홍륜) ▲고대중국에 있어서 禮와 법의 제정(레옹 방데르메르슈) ▲16세기 일본소설을 통해본 수도의 새로운 면모(자클린느 피조)

[자료] ▲아펜젤러와 번커의 서간

연세대학교학연구원 / A5신 / 348면 / 비매품

社會科學論評(제7호)

[서평] ▲延河清 저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정갑영)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김세균) ▲심영희 저 「비판범죄론」(김동일) ▲정양은 저 「자연 · 인간 · 사회」(민경환) ▲서울대 경영연구소 편 「한국기업의 현황과 과제」(이학중) ▲류일상 저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진교훈) ▲이완범 저 「국민과 정부관료제」(강신택) ▲송준호 저 「조선사회사연구」(한영우)

[서평에 대한 답변] 심영희 · 류일상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A5신 / 148면 / 비매품

民族文化研究(제22호)

[특집] 芝蕪 趙東卓선생 20周忌추모 학술대회 ▲지훈의 인품과 사상(정재각) ▲조지훈의 문학사적 위치(오세영) ▲조지훈의 국문학 연구(최철) ▲조지훈의 민속학 연구(김태곤) ▲조지훈의 역사관 연구(김정배) ▲종합토론(인권환 · 김인환 · 김홍규 · 신용하)

[논문] ▲芝蕪詩의 이미지와 상상적 구조(김기중) ▲이광수의 문학론 연구(이병헌)

▲「土地」와 「客主」의 심미적 거리(이기인)

▲王安石的 寓言詩(오현필)

[자료] 조지훈연구 참고문헌목록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A5신 / 304면 / 5500원

창간호

政治社會

[특집]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장미승) ▲보수연합의 허구성(고성국) ▲한국정치현실에서의 보수와 진보세력의 전개와 실체(정기영) ▲전민련, 우리의 투쟁과 조국(박계동) ▲진보정치연합,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또하나의 노력(김부겸) [집중분석] 남북문제 ▲북방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문정인)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한)

[인물연구] ▲몽양 여운형—최초의 근대적 대중정치인(전우용)

[인터뷰] 이부영 · 제정구 · 박희태 · 박석무 · 김광일 · 윤재기

[해외동향] ▲부시정권의 인맥(원성목)

韓社研 / B4 / 122면 / 2500원

계간지

외국문학(89년 봄호)

[특집] 일본문학 ▲「源氏物語」의 일본적 미학(김종덕) ▲일본근대소설의 근대적 성격(최재철) ▲일본 탐미주의문학의 계보(김춘미) ▲일본 프로문학과 농민문학의 저항(세리카와 데즈요) ▲「베르테르」와 「고코로」의 비교연구(올드리지) ▲일본시가의 특질(유정) ▲일본 전후문학의 개인적 스케치(아리카와 요우지)

[논문] ▲해방기 시단의 청록파(김용직) ▲리얼리즘의 개념과 성격(김옥동)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주체의 문제(정호웅) ▲히틀러 · 융 · 오닐(보르히스)

[시] 이형기 · 기형도 · 김승희 · 장석주 · 최승자 · 장 따르뒤

[소설] 김수경 · 구효서 · 최수철 · 요시유키 준노스케

[서평] ▲메타픽션(김성곤) ▲갈등과 문제제기의 이야기들(김선학)

열음사 / A5신 / 430면 / 4000원

姓氏의 고향

중앙일보사 엮음



중앙일보에 여러해 동안 연재됐던 「姓氏의 고향」에 관계자료를 보완, 방대한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경제기획원이 실시한 85년도 인구조사에 나타난 성씨를 기준으로, 87년 현재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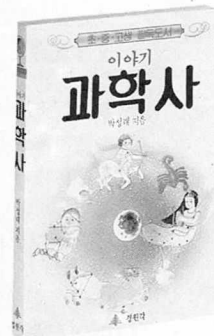
에 현존하는 성씨들을 다루고 있다. 각 성씨를 다시 本貫別로 살피고 있어, 이 책에서 다른 성씨는 총3천여 씨족에 이른다.

내용은 각 씨족(본관별)의 연혁에서부터 역대인물과世系, 인구분포, 등과인명, 제향관계, 서원 및 사당, 시조묘의 소재, 족보간행史實 등을 총망라해 집대성함으로써 한국성씨의 백과사전적인 구실을 할 수 있게 꾸며졌다.

전반적으로 당해 문중의 傳承 내지 족보 기재사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이 책의 문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예컨대 역사적 근거가 없는 始祖東來說이나 上代 '주요인물'의 관작등에서 그런 허구성이 엿보인다. 다만 그것은 이런 종류의 책이 어쩔 수 없이 안을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중앙일보사/B4/2562면/80000원

이야기 과학사

박성래 지음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학도서의 빈곤' 속에 살고 있다. 때마침, 특히 과학기술에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는 초 · 중 · 고생과 어린이들에게 읽히기 위한 「이야기 과학사」

가 나온 것은,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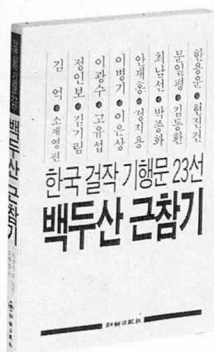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외국어대 교수)가 「소년동아일보」에 87년 봄부터 88년 가을까지 1년반 동안 연재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인류가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의 얘기에서부터 숫자의 발달,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시계와 달력의 발달, 산업혁명, 통신혁명, 항공기의 발달 등 과학기술이 발달해온 역사를 토크 중심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양과학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동양의 생물학이나 중국의 수학 · 천문학을 비롯, 한국의 인쇄기술과 금속기술, 독창적인 지구연구등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과학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으로 돋보인다.

경원작/A5신/346면/3500원

백두산 근참기

최남선 외 / 소재영 엮음



「한국결작기행문 23선」이란 부제가 가리키듯, 주로 민족수난기인 일제시대에 씌어진 명인들의 명기행문 23편을 한데 묶었다. 수록 필자는 한용운 · 문일평 · 최남선 · 안재홍 · 이병기 · 이광수 · 정인보 · 김억 · 현진건 · 김동환 · 박종화 · 정지용 · 이은상 · 고유

섭 · 김기림 등 15인.

그중에도 육당의 「백두산근참기」와 「심춘순례」, 춘원의 「금강산유기」 등은 고전적 명작으로 널리 알려진 글이고, 안재홍의 「백두산 등척기」, 현진건의 「단군성적순례」, 고유섭의 「송도고적순례」 등은 좀처럼 구해 읽기 어려운 명문들이다. 다만 이들 기행문은 워낙 長文이어서 부분적으로 발췌해 신고했다.

이밖에 문일평의 「동해유기」, 김억의 「약산등대」, 정지용의 「다도해기」, 김기림의 「주를 온천행」 등도 산뜻한 필치가 돋보이는 글들로 감회를 새롭게 한다.

매 항목마다 서두에, 편자인 蘇在英교수(숭실대 국문과)가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해설하고 있어 독자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이들 글에서 기행문학과 시대정신의 만남이라는 문학적 엑스타시를 맛볼 수 있다.

조선일보사/A5신/382면/3800원

200자 안내